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과 비행: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의 매개효과

정 진 경[†]

오 경 자

문 경 주

조 아 라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주) 마음사랑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와 비행의 관련성,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시 소재 2개 중학교 1, 2, 3학년 학생 541명(남자=269, 여자=272)과 서울시 각 중학교에서 비행으로 상담 프로그램에 의뢰된 중학교 1, 2, 3학년 학생 103명(남자=62, 여자=41)을 대상으로 정서적 자율성 척도, 행동적 자율성 척도, 아버지 표상-지각 척도, 어머니 표상-지각 척도, 청소년 비행 척도를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남학생 집단에서는 아버지 표상이, 여학생 집단에서는 어머니 표상과 아버지 표상이 비행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아버지 표상과 어머니 표상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서적 자율성은 남학생 집단에서 비행에 대한 아버지 표상의 영향을 매개하였으며, 여학생 집단에서는 비행에 대한 아버지 표상의 영향과 어머니 표상의 영향을 모두 매개하였다. 행동적 자율성의 경우,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에서 모두 아버지 표상이나 어머니 표상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결과의 시사점과 본 연구의 제한점,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비행, 부모-자녀 관계, 정서적 자율성, 행동적 자율성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정 진 경 / 인제대 상계백병원 정신과 임상심리학실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FAX : 02-936-8069 / E-mail : nicejkc@hanmail.net

청소년 비행은 성인의 범죄 행위와는 별도로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위와 더불어 비사회적인 행위인 불량 행위 및 장래에 죄를 범할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의 하나로 간주되는데(황규숙, 1999), 현재 상당수의 청소년이 비행의 주체 또는 대상이 되고 있는 등, 청소년의 비행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가족 내 요인 즉, 부모-자녀 관계가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김준호, 1990). Vuchinich, Bank와 Patterson(1992)은 초기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 태도와 반사회적 행동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Dryfoos(1989)는 비행을 포함한 문제 행동을 예측하는 6가지 요인의 하나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부모가 자녀와 충분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부족하며, 부모로서 지도 감독하지 않거나 혹은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경우, 문제 행동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과보호적이지만 실제적인 돌봄이 적은 부모의 양육 태도는 우울과 불안등의 정서적 문제와 함께 공격성이나 비행의 문제를 유발하게 되며(Rey & Plapp, 1990), 품행 장애를 보이는 청소년이 부모의 과보호와 과잉 통제를 받지만 적절한 보살핌과 관심은 받지 못하였다(진혜경, 김경빈, 이종일, 1998). 다른 연구에서도 부모의 감독 소홀과 부족한 관여 또는 과잉 관여와 과보호적인 태도가 비행과 같은 심각한 행동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하였다(Labey, Piacentini, McBuremett, & Stone, 1988a; Parker, Lipscombe, 1981).

이렇듯, 청소년의 심리적, 정서적 적응 문제

특히 비행에서 부모-자녀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많은 연구들이 동의하지만(Patterson, 1982), 대부분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할 뿐, 구체적인 관계의 질과 양상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일방적인 통제와 돌봄을 받는 단계에서 벗어나 보다 평등한 부모-자녀 관계를 향해 변화하는 시기로(Chen & Dornbusch, 1998), 비행과 관련된 부모-자녀 관계 역시 이를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자율성 개념은 비행과 부모-자녀 관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는 자신이 독립적임을 천명하는 시기로(Steinberg, 1990) 부모에 대한 자율성의 욕구가 증가하게 된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율성은 부모로부터 개별화를 이루고 부모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과 같이 정서적 측면과(Steinberg & Silverberg, 1986), 가족 내의 다양한 의사결정 상황에서 부모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 등의 행동적 측면으로(Bosma, Jackson, Zijsling, Zani, Cicognani, Xerri, Honess, & Charman, 1996) 구분될 수 있다.

Havinghurst(1948)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의 발달적 전환을 이루고, 성인으로서 건강한 심리·사회적 기능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율성의 획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제이고 성인기의 적응을 위해 중요한 청소년의 자율성 욕구가 반드시 긍정적인 성숙의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수 있다. 만일, 자율성의 발달이 긍정적인 환경에서 적절한 시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소년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청소년 비행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청소년은 진정한 심리·

사회적 성숙과는 다른 유사성숙(pseudomaturity)을 나타내며, 외적으로 성인과 같은 행동을 하려는 청소년의 시도는 비행의 형태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Newcomb & Bentler, 1988; Coleman & Hendry, 1990; Hendry, 1993).

일반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는 자율성이 발달하는 맥락을 제공하며(Darling and Steinberg, 1993; 이시형, 1997), 자율성이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다(Pettit, Laird, Dodge, Bates, & Criss, 2001; McElhaney & Allen, 2001). 청소년의 문제 행동과 자율성의 관련성을 가정하는 변화 취약성(transition proneness) 관점은 문제 행동의 원인, 혹은 문제 행동의 취약성 요인으로 가족 내에서의 성숙과 연관된 특징들을 제시하였고(Jessor & Jessor, 1978), Offer, Ostrov 그리고 Howard(1981)도 비행을 보이거나 심리적으로 혼란된 청소년일수록 부모의 가치를 공유할 가능성이 낮고 부모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음을 제시하였다.

이를 볼 때, 청소년기에서 자율성의 의미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에 의해 달라질 수 있고,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 욕구를 얼마나 적절히 다루는가는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되므로(Allen, Hauser, Bell, & O'Connor, 1994; Allen, Hauser, Eickholt, Bell, & O'Connor, 1994), 정상적으로 자율성이 발달하고 자율성이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형성과 유지가 필요하다(McElhaney & Allen, 2001; Pettit, Laird, Dodge, Bates, & Criss, 2001).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비행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모-자녀 관계의 문제를 청소년의 자율성 발달과

함께 살펴보았다. 부모-자녀 관계와 비행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아버지 표상과 부정적인 어머니 표상은 각각 청소년의 비행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이 각각 아버지 표상 및 어머니 표상과 비행의 관계를 매개하며,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의 매개 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설정하고 그에 대해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에 대한 자율성이 부모-자녀 관계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비행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검증하고, 청소년기의 비행을 설명하는 심리적 기준으로 자율성 요인이 타당한 지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한 접근과 보다 나은 청소년 적응을 위한 개입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서울시 도봉구 소재의 D중학교와 S중학교 1, 2, 3학년 학생 541명(남 269명, 여 272명)과 서울 시내 각 중학교에서 징계 조치를 받아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한 상담 프로그램에 의뢰된 학생 103명(남 62명, 여 4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측정 도구

부모에 대한 정서적 자율성 측정

Steinberg & Silverberg(1986)의 정서적 자율성 척도(Emotional Autonomy Scale)를 연구자가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임상 심리 전문가 2인과 이중 언어 사용자에 의한 검토와 문항 확인 과

정을 거쳤으며, 총 20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모든 일에서 부모님과 의견이 일치한다', '나에 대해 부모님이 모르는 것이 있다', '우리 부모님은 거의 실수하지 않으신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은 0점에서 4점으로 채점되며, 높은 점수일수록 부모에 대한 정서적 자율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구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79이었다.

부모에 대한 행동적 자율성 측정

Bosma등(1996)의 'The Perspectives on Adolescent Decision Making Questionnaire (PADM)'을 연구자가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임상 심리 전문가 2인과 이중 언어 사용자에 의한 검토와 문항 확인 과정을 거쳤으며, 총 21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취침 시간의 결정에서부터, 흡연 여부의 결정, 외모나 머리 모양의 결정, 용돈 사용에 대한 결정 등의 상황이 포함되었다. 각 항목은 0점에서 4점으로 채점되고, 높은 점수는 부모에 대한 행동적 자율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구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87이었다

부모-자녀 관계의 측정

김영아(2000)가 구성한 어머니 표상-지각 척도를 이용하여 어머니와의 관계 및 아버지와 관계를 각각 측정하였다. 총 20문항이고 각 항목은 0점에서 3점으로 채점되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 행동에 대한 부정적 지각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구한 어머니 표상-지각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92이었고, 아버지 표상-지각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93이었다.

비행 척도

숨은 비행 척도(Latent Delinquency Questionnaire)의 25 문항 중, 빈도가 낮은 '사창가에 간 적이 있다'는 문항을 제외하고, '음란 서적을 본 적이 있다'는 항목과 '음란 비디오를 본 적이 있다'는 항목은 내용이 중복되어, 한 문항으로 통합하여, 총 23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은 0점에서 4점으로 채점되며, 높은 점수는 비행 정도가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구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90이었다.

연구 절차

일반 중학교에서의 설문 조사는 학교 및 교과 담임 교사의 허락 하에 설문 내용과 절차를 숙지한 심리학과 대학원생 및 학부생 1명이 각 학급에서 실시하였다. 서울시에서 실시한 상담 프로그램은 하루 2시간씩 5일간 진행되었고, 프로그램 진행자가 프로그램 종료일에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소요 시간은 대략 40분이었다.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 9.0 버전을 사용하였고, 자료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요 변인에 대한 남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비행 수준이 아버지 표상과 어머니 표상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남녀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버지 표상과 어머니 표상이 각각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남녀 집단을 구분하여 일련의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율성이 높았다, $t(642)=-2.00$, $p<.05$.

주요 변인 간 상관 관계

결 과

남녀 집단의 차이 검증

주요 변인에 대한 남녀 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 검증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비행 점수가 높았고, $t(641)=5.14$, $p<.001$, 어머니 표상이 긍정적이었으며, $t(636)=-2.95$, $p<.01$. 여학생 집단은 남학생 집단보다 행동적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상관 관계 분석을 성별을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남학생 집단의 상관 관계는 표 2에, 여학생 집단의 상관관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아버지 표상, 어머니 표상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남녀 학생 집단을 구분하여, 비행 수준이 아버지 표상과 어머니 표상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표 1. 성별에 따른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남 ($n=331$)	여 ($n=313$)	전체 ($n=644$)	t
비행	17.18 (14.64)	11.73 (12.02)	14.53 (13.69)	5.14 ***
정서적 자율성	41.89 (8.98)	41.26 (10.66)	41.58 (9.83)	.81
행동적 자율성	55.34 (14.24)	57.53 (13.49)	56.40 (13.91)	-2.00 *
어머니 표상	14.00 (9.10)	16.39 (11.33)	15.17 (10.31)	-2.95 **
아버지 표상	16.45 (11.85)	17.06 (12.00)	16.74 (11.82)	- .65

* $p<.05$. ** $p<.01$. *** $p<.001$.

표시된 값은 평균, ()는 표준편차

표 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남학생)

변인	1	2	3	4
1 청소년 비행	1.00			
2 정서적 자율성	.25 ***	1.00		
3 행동적 자율성	.33 ***	.10	1.00	
4 어머니 표상	.06	.45 ***	-.14 *	1.00
5 아버지 표상	.13 *	.40 ***	-.11 *	.39 ***

* $p<.05$. *** $p<.001$.

표 3.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여학생)

변인	1	2	3	4
1 청소년 비행	1.00			
2 정서적 자율성	.34***	1.00		
3 행동적 자율성	.16***	-.03	1.00	
4 어머니 표상	.21***	.65***	-.16**	1.00
5 아버지 표상	.23***	.48***	-.10	.42***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아버지 표상과 어머니 표상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남학생)

예언 변인	β	R^2 (Adjusted R^2)	R^2 변화량	F
아버지 표상	.15	.02 (.02)	.02	7.37**

** $p < .01$

표 5. 아버지 표상과 어머니 표상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여학생)

예언 변인	β	R^2 (Adjusted R^2)	R^2 변화량	F
아버지 표상	.17	.05 (.05)		17.16***
어머니 표상	.14	.07 (.06)	.02	11.44***

*** $p < .001$

다. 남학생 집단의 분석 결과는 표 4에, 여학생 집단의 분석 결과는 표 5에 각각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남학생 집단에서 아버지 표상이 비행 수준의 약 2%를 설명하였다, $F(2, 321)=7.37$, $p < .01$. 여학생 집단에서는 아버지 표상과 어머니 표상이 비행 수준의 약 7%를 설명하였다, $F(2, 302)=11.44$, $p < .001$. 이 때 아버지 표상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R^2=.05$), 이에 추가적으로 어머니 표상이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R^2 의 차이=.02).

아버지 표상, 어머니 표상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의 매개 효과

아버지 표상과 어머니 표상이 각각 청소년의 비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의한 일련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변인간의 매개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단순 상관이 유의하다는 기본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두 변인의 관계가 다른 변인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고 가정하기 어

립기 때문이다(Baron & Kenny, 1986). 표 2와 표 3에 제시된 상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남학생 집단에서 어머니 표상은 비행 수준과 유의한 상관이 없어 매개 효과 검증은 의미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여학생 집단에서는 아버지 표상과 행동적 자율성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아, 아버지 표상과 비행의 관계에 대한 행동적 자율성의 매개효과 검증은 실시하지 않았다.

정서적 자율성의 매개 효과

남학생 집단에서 아버지 표상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적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버지 표상은 비행에 대해 1.6%의 변량을 설명하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F(1, 326)=5.29, p<.05$. 동시에 정서

적 자율성에 대해서도 15.7%의 변량을 설명하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F(1, 326)=60.64, p<.001$. 또한 정서적 자율성 역시 비행에 대해 6.5%의 변량을 설명하며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F(1, 326)=22.77, p<.001$. 마지막 회귀식에서 정서적 자율성의 효과를 통제하고 아버지 표상을 투입하였을 때, 비행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변량(R^2 변화량=.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 변화량=.26, $p=.609$. 따라서, 남학생 집단에서 아버지 표상은 정서적 자율성에 매개되어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집단에서, 아버지 표상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적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버지 표상은 비행에 대해 5.3%의 변량을 설명하며 유의한 영향을 미

표 6. 아버지 표상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적 자율성의 매개효과(남학생)

종속변인	독립변인	R^2	F	R^2 변화량	F 변화량	p
비행	아버지 표상	.02	5.29 *			
정서적 자율성	아버지 표상	.16	60.64 ***			
비행	1. 정서적 자율성	.07	22.77 ***			
	2. 아버지 표상	.07	11.49 ***	.00	.26	.609

* $p<.05$. *** $p<.001$.

표 7. 아버지 표상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적 자율성의 매개효과(여학생)

종속변인	독립변인	R^2	F	R^2 변화량	F 변화량	p
비행	아버지 표상	.05	17.15 ***			
정서적 자율성	아버지 표상	.23	90.41 ***			
비행	1. 정서적 자율성	.13	44.06 ***			
	2. 아버지 표상	.13	22.92 ***	.01	1.68	.196

*** $p<.001$

치고 있다, $F(1, 305)=17.15, p<.001$. 동시에 정서적 자율성에 대해서도 22.9%의 변량을 설명하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F(1, 305)=90.41, p<.001$. 정서적 자율성 역시 비행에 대해 12.6%의 변량을 설명하며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F(1, 305)=44.06, p<.001$. 마지막 회귀식에서 정서적 자율성의 효과를 통제하고 아버지 표상을 투입하였을 때, 비행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변량(R^2 변화량=.0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 변화량=1.68, $p=.196$. 따라서 여학생 집단에서 아버지 표상은 정서적 자율성에 매개되어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집단에서 어머니 표상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적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 표상은 비행에 대

해 4.3%의 변량을 설명하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F(1, 305)=13.92, p<.001$. 동시에 정서적 자율성에 대해서도 42.8%의 변량을 설명하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F(1, 305)=231.54, p<.001$. 정서적 자율성 역시 비행에 대해 11.8%의 변량을 설명하며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F(1, 305)=41.53, p<.001$. 마지막 회귀식에서 정서적 자율성의 효과를 통제하고, 어머니 표상을 투입하였을 때, 비행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변량(R^2 변화량=.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 변화량=.18, $p=.666$. 따라서 여학생 집단에서 어머니 표상은 정서적 자율성에 매개되어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적 자율성의 매개효과

남학생 집단에서 아버지 표상이 비행에 영

표 8. 어머니 표상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적 자율성의 매개효과 (여학생)

종속변인	독립변인	R^2	F	R^2 변화량	F 변화량	p
비행	어머니 표상	.04	13.92 ***			
정서적 자율성	어머니 표상	.43	231.54 ***			
비행	1. 정서적 자율성	.12	41.53 ***			
	2. 어머니 표상	.12	20.80 ***	.00	.19	.666

*** $p<.001$

표 9. 아버지 표상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행동적 자율성의 매개효과(남학생)

종속변인	독립변인	R^2	F	R^2 변화량	F 변화량	p
비행	아버지 표상	.02	5.29 *			
행동적 자율성	아버지 표상	.01	4.21 *			
비행	1. 행동적 자율성	.10	36.23 ***			
	2. 아버지 표상	.13	23.56 ***	.03	9.91	.002

* $p<.05$. *** $p<.001$.

표 10. 어머니 표상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행동적 자율성의 매개효과(여학생)

종속변인	독립변인	R^2	F	R^2 변화량	F 변화량	p
비행	어머니 표상	.04	13.92 ***			
행동적 자율성	어머니 표상	.03	8.25 **			
비행	1. 행동적 자율성	.03	8.28 **			
	2. 어머니 표상	.08	13.78 ***	.06	18.80	.000

** $p < .01$. *** $p < .001$.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행동적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버지 표상은 비행에 대해 1.6%의 변량을 설명하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F(1, 326)=5.29$, $p < .05$. 동시에 행동적 자율성에 대해서도 1.3%의 변량을 설명하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F(1, 326)=4.21$, $p < .05$. 행동적 자율성 역시 비행에 대해 10.0%의 변량을 설명하며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F 변화량=36.23, $p < .001$. 그런데 마지막 회귀식에서 행동적 자율성의 효과를 통제하고, 아버지 표상을 투입하였을 때 비행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변량(R^2 변화량=.03)이 통계적으로 여전히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 F 변화량=9.91, $p = .002$. 따라서, 남학생 집단에서 비행에 대한 아버지 표상에 있어서 행동적 자율성의 매개효과가 지지되지 않았다.

여학생 집단에서 어머니 표상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행동적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 표상은 비행에 대해 4.3%의 변량을 설명하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F(1, 305)=13.92$, $p < .001$. 동시에 행동적 자율성에 대해서도 2.6%의 변량을 설명하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F(1, 305)=8.25$, $p < .01$. 행동적 자율성 역시 비행에 대해 2.6%

의 변량을 설명하며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F(1, 305)=8.28$, $p < .01$. 마지막 회귀식에서 행동적 자율성의 효과를 통제하고, 어머니 표상을 투입하였을 때 비행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변량(R^2 변화량=.06)이 통계적으로 여전히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 F 변화량=18.80, $p = .000$. 따라서 여학생 집단에서 비행에 대한 어머니 표상에서 행동적 자율성의 매개효과가 지지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대인 관계인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비행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가와 부모와의 관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율성이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모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버지 표상-지각 척도, 어머니 표상-지각 척도를 이용하였고,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율성을 정서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부모 표상이 비행과 갖는 관련성, 그리고 부모 표상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의 매개 효과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고자 분석 과정에서 남녀 집

단을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요 변인들에 대한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비행 수준이 높았고 이러한 남녀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이는 선행 연구 결과(김준호 등, 1990)와 일관적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초기와 중기 청소년기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생물학적인 발달이 2년 정도 앞서기 때문에 여학생의 정서적 자율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Beyers & Goossens, 1999)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남녀 집단에서 정서적 자율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행동적 자율성이 남학생 집단보다 여학생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 문화적 요인과 관련되어, 외국에서의 성차가 우리 나라에서는 다른 의미로 이해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남학생 집단에서 비행과 가장 큰 정적 상관을 갖는 것은 행동적 자율성이었고, 여학생 집단에서는 정서적 자율성이었다. 그리고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에서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은 각각 비행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이었다. 남학생 집단에서 비행에 대해 보다 큰 설명력을 보인 것은 행동적 자율성이었고, 여학생 집단에서는 정서적 자율성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남학생의 경우, 부모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것이 비행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되고, 여학생의 경우, 부모와 정서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이 비행의 위험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남학생 집단의 결과는 행동적 자율성과 비행의 관계 검증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

(Beyers & Goossens, 1999)와 일치하지만, 여학생 집단의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국 비행에 대한 자율성의 영향에 남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정서적 자율성의 특징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서적 자율성의 획득은 청소년의 개별화 과정 중 하나로 부모에 대한 유아적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은 자아 성숙을 이룰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실의 의미도 있다(Hill & Holmbeck, 1986). 즉, 청소년이 스스로의 내적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정서적 거리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므로 정서적 자율성의 발달은 궁극적으로 적응적이라고 간주되나(Steinberg & Silverberg, 1986), 높은 정서적 자율성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분리로써 경험되면 불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Ryan & Lynch, 1989).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한 정서적 자율성이 정서적 측면에서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동시에 독립이 부모와의 분리(detachment)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바,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에 보다 민감할 수 있는 여학생 집단은 남학생 집단에 비해 정서적 자율성이 상실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여학생에게 더 큰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비행의 문제와 더 깊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여학생 집단에서 비행의 문제와 함께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가 수반될 가능성이 남학생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편, 행동적 자율성이 높은 것은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Bosma, et al, 1996), 비행의 발생을 예언할 수 있는데(Lamborn et al, 1996), 이러한 사실은 본 연구에서 여학생 집단보다 비행 점수가 높은 남학생 집단에

서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는 더 적고, $t(640) = -2.996$, $p < .01$, 비행에 대한 행동적 자율성의 효과가 여학생 집단보다 크다는 것과 일치한다. 비행의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 즉 구체적인 비행의 종류와 좀더 심각한 비행 행동에서의 높은 빈도 등을 고려할 때에도 남학생 집단에서의 비행이 양적, 질적 측면에서 모두 더 심각할 것인데, 이러한 사실도 남학생 집단에서의 높은 행동적 자율성과 비행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부모 표상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상관 분석 결과에서 예상되었던 것처럼, 남학생 집단에서는 아버지 표상이 비행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이었으며, 여학생 집단에서는 아버지 표상과 어머니 표상이 비행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이었다. 따라서,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간에, 부모 관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었다. 이전 연구들에서 자녀의 적응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성 부모 또는 동성 부모라는 논란이 있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경우에는 동성 부모인 아버지와의 관계에 더 중요하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모두 중요하였다.

네 번째, 아버지 표상, 어머니 표상과 비행의 관계에 매개하는 정서적 자율성의 효과는 남녀 집단에 따라 달랐다. 남학생 집단에서 아버지 표상은 정서적 자율성을 매개로 비행에 영향을 끼친다. 여학생 집단에서는 아버지 표상과 어머니 표상이 각각 정서적 자율성을 매개로 비행에 영향을 끼쳤다.

기존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이 부모-자녀 관계의 질에 따라 달라져서(McElhaney & Allen, 2001; Pettit, Laird, Dodge, Bates, & Criss, 2001), 부모의 적절한 지지를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 정서적 자율성이 높은 것은 비행과 같은 부적응과 연관되지만, 부모로부터 적절한 지지를 지각하는 경우 정서적 자율성은 청소년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yers & Goossens, 1999).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부모-자녀 관계와 상관없이 정서적 자율성이 높은 경우 일관되게 부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이며 비행 성향도 높았다. 이는, 정서적 자율성이 부모와 독립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개별화'와 같은 긍정적인 적응의 의미를 갖기보다, 부모로부터의 '분리'로 지각되면서 불안정감과 분리감을 경험하며 부적응이 유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에는 서양 사회와는 달리 가족 중심적인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 특유의 사회 문화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또는 청소년기 중 중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시기에서는 개별화 또는 적응적 수준의 정서적 자율성 발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다섯 번째, 행동적 자율성은 아버지 표상, 어머니 표상과 비행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없었다. 남학생 집단에서는 아버지 표상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행동적 자율성이 매개하지 않았고, 여학생 집단에서는 어머니 표상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행동적 자율성이 매개하지 않았다. 이는, 행동적 자율성이 부모-자녀 관계와 비행의 관계에서 단순한 일 방향으로 관련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 즉, 부모-자녀 관계가 매우 부정적일 경우 행동적 자율성이 높아지지만, 부모-자녀 관계가 매우 긍정적일 경우에도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없이 부모는 자녀에게 의사결정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존중하게 되어 행동적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부모-자녀 관계와 비

행에 대해 행동적 자율성의 매개 효과가 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좀더 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행동적 자율성과 비행이 상관 관계가 있었지만, 부모 표상과는 약한 상관 또는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부모-자녀 관계가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경우 모두 행동적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어 전체 상관관계가 혼입되어(confuse)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비행 집단의 이질성의 문제로, 비행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특징은 매우 다양하여 한 가지 특징으로 규명하기 힘든 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자율성과 비행의 관계도 비행 집단의 특징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다양한 비행 하위 집단에서 동일한 관계성을 갖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두 번째, 적응에 대한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의 의미가 초기 청소년기, 후기 청소년기, 초기 성인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을 비행의 문제 뿐 아니라, 다른 외현화 장애나 내현화 장애 등 적응 전반에 걸쳐 검증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세 번째로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의 발달에서 나타나는 개인 차이의 원인을 규명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인데, 정서적 행동적 자율성의 발달을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개인 내적 또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탐색도 의미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가족 내 특성을 포함한 환경적 요인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

여, 현재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보이는 청소년이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그러한 자율성을 성취한 것인지, 아니면 환경적 요인의 압력에 의해서 자율성을 갖게 된 것인지를 밝히고, 그러한 각 경우에 있어서 비행을 포함한 사회적 적응의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한편,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에서 모두 행동적 자율성과 정서적 자율성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이 자율성의 각기 다른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외국의 선행 연구에서 행동적 자율성과 정서적 자율성의 상관이 높은 것과 다르므로, 이것이 문화적 차이 때문인지, 단순 표집의 문제인지에 대해 향후 검증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본 연구의 초점이었던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행동적 자율성 뿐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성의 발달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도 청소년의 발달과 비행의 문제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므로 향후 이러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영아 (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 증상에 대한 대인표상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준호 (1990).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 이시형 (1997). 부모-자녀 관계와 청소년기 심

- 리 사회적 적응. 삼성 생명보험 주식회사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제 96-2호.
- 진혜경, 김경빈, 이종일 (1998). 청소년 품행 장애와 부모 양육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9(1), 67-81
- 황규숙 (1999). 부모양육 태도와 중요한 타인이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llen, J. P., Hauser, S. T., Bell, K., & O'Connor, T. G. (1994). Longitudinal assessment of autonomy and relatedness in adolescent-family interactions as predictors of adolescent ego- development and self-esteem. *Child Development*, 65, 179-194.
- Allen, J. P., Hauser, S. T., Eickholt, C., Bell, K., & O'Connor, T. G. (1994). Autonomy and relatedness in family interactions as predictors of expressions of negative adolescent affec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4(4), 535-552.
- Allen, J. P., Kuperminc, G. P., & Moore, C. W. (1997). Developmental approaches to understanding adolescent deviance. In S. S. Luthar, J. A. Burack, D. Cicchetti, & J. Weisz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s on risk and disorder*. Cambridge, U. 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rrera, M., & Garrison, J. C. (1992). Family and peer social support as specific correlates of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0: 1-16.
- Beyers, W., & Goossens, L. (1999). Emotional autonomy, psychosocial adjustment & parenting: interactions,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Journal of Adolescence*, Vol.22(6), 753-769
- Bosma, A., Jackson, S. D., Zijsling, D. H., Zani, Z. B., Cicognani, E., Xerri, M. L., Honess, T. M., & Charman, L. (1996). Who has the final say? Decisions on adolescent behaviour within the family. *Journal of Adolescence*, 19, 277-291.
- Chen, Z. Y. & Dornbusch, S. M. (1998). Relating aspects of adolescent emotional autonomy to academic achievement and deviant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3, 293-319.
- Coleman, J. C. & Hendry, L. (1990). *The nature of adolescence(2nd edition)*. London: Routledge.
- Cooper, C. R., Grotevant, H. D., & Condon, S. M. (1983). Individuality and connectedness in the family as a context for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and role-taking skill. In H. D. Grotevant & C. R. Cooper (Ed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Vol. 22. Adolescent development in the family*(pp. 43-59). San Francisco: Jossey-Bass.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 487-496.
- Dryfoos, J. G. (1989). *Adolescents at Risk*,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Havinghurst, R. (1948). *Developmental Tasks and*

- Education*. McKay, New York.
- Helsen, M., Vollebergh, W., & Meeus, W. (2000). Social support from parents and friends and emotional probl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Vol 29(3), 319-335.
- Hendry, L. B. (1993). *Growing up and Going out*. Aberdeen: Aberdeen University Press.
- Hill, J. P., & Holmbeck, G. (1986). Attachment and autonomy during adolescence. In G. Whitehurst (Ed.), *Annals of child development*, Vol. 3, Greenwich, CT: JAI.
- Jessor, R. (1998). *New Perspectives on Adolescent Risk Behavio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essor, R. & Jessor, S. L. (1978). Theory testing in longitudinal research on marijuana use. In D. B. Kandel (Ed.), *Longitudinal research on drug use: Empirical findings and methodological issues* (pp.41-71). Washington, DC: Hemisphere.
- Ketterlinus, R. D. & Lamb, M. E.(1994).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Issues and Research*.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Labey, B., Piacentini, J., McBuremett, K., & Stone, P. (1988a). Psychopathology in the parents of children with conduct disorder and hyperactivit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7, 163-170.
- Lamborn, S. D., Dornbusch, S. M., Steinberg, L. (1996). Ethnicity and Community Context as Moderators of the Relations between Family Decision Making and Adolescen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283-301.
- McElhaney, K. B., & Allen, J. P.(2001). Autonomy and Adolescent Social Function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Risk, *Child Development*, 72(1), 220-235.
- Meeus, W., & Dekovic, M. (1995). Identity development, parental and peer support in adolescence: Results of a national Dutch survey. *Adolescence*, 30, 931- 944.
- Nada Raja, S., McGee, R., & Stanton, W. R. (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s and pee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 471-485.
- Newcomb, M. D., & Bentler, P. M. (1988). *Consequences of Adolescent Drug Use: Impact on the Lives of Young Adults*. Newbury Park, CA: Sage.
- Noom, M. J., Dekovic, M., & Meeus, W. (2001).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Adolescent Autonom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30(5), 577- 595
- Offer, D., Ostrov, E., & Howard, K. I. (1981). *The adolescent: A psychological self-portrait*. New York: Basic Books.
- Parker, C., Lipscombe, P. (1981). Influences maternal, overprotect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4.
- Patterson, G. R. (1982). *Coercive family process*. Eugene, OR: Castalia.
- Pettit, G. S., Laird, R. D., Dodge, K. A., Bates, J. E., & Criss, M. M. (2001). Antecedents and behavior-Problem Outcom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2), 583-598.

- Rey, J. M., & Plapp, J. M. (1990). Quality of perceived parenting in oppositional and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9, 382-385.
- Ryan, R. M., & Lynch, J. H. (1989). Emotional autonomy vs. detachment Revisiting the vicissitudes of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Child Development*, 60, 340-356.
- Steinberg, L. (1990).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the family relationship. In S. S. Feldman & G. R. Elliot(Eds.),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Steinberg, L., & Silverberg, S. B. (1986).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7, 841-851.
- Vuchinich, S., Bank, L., & Patterson, G. R. (1992). Parenting, Peers, and the Stability of Antisocial Behavior in Preadolescent Boys, *Developmental Psychology*, 28(3), 510-521.
- 원고접수일 : 2004. 10. 30
게재결정일 : 2005. 8. 24

Adolescents' Perception of Relationship with Parents and Juvenile Delinquency: Mediational effect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Autonomy

Jin Kyung Chung

Inje University
Sanggye Paik Hospital

Kyung Ja Oh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Kyung Joo Moon

Maumsarang

Ara Cho

Inje University
Sanggye Paik Hospital

The influence of parent-child relationship on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mediational effect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autonomy on parent-child relationship were examined with adolescents ages 13 to 15. Emotional Autonomy Scale, Behavioral Autonomy Scale, Maternal Representation Questionnaire, Paternal Representation Questionnaire, and Adolescent Delinquency Scale were administered to 331 boys and 313 girls in the 7th, 8th, 9th grad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paternal representation significantly predicted delinquent behaviors in boys whereas in girls both paternal and maternal representation were significant in predicting delinquent behaviors. The emotional autonomy mediated the influence of paternal representation on delinquent behaviors in boys, and the influence of both paternal and maternal representation was significantly mediated by emotional autonomy in girls. The mediational effect of behavioral autonomy the mediational effects was not supported by data from boys and girl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results, as well as issue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 juvenile delinquency, parent-child relationship, emotional autonomy, behavioral autonomy